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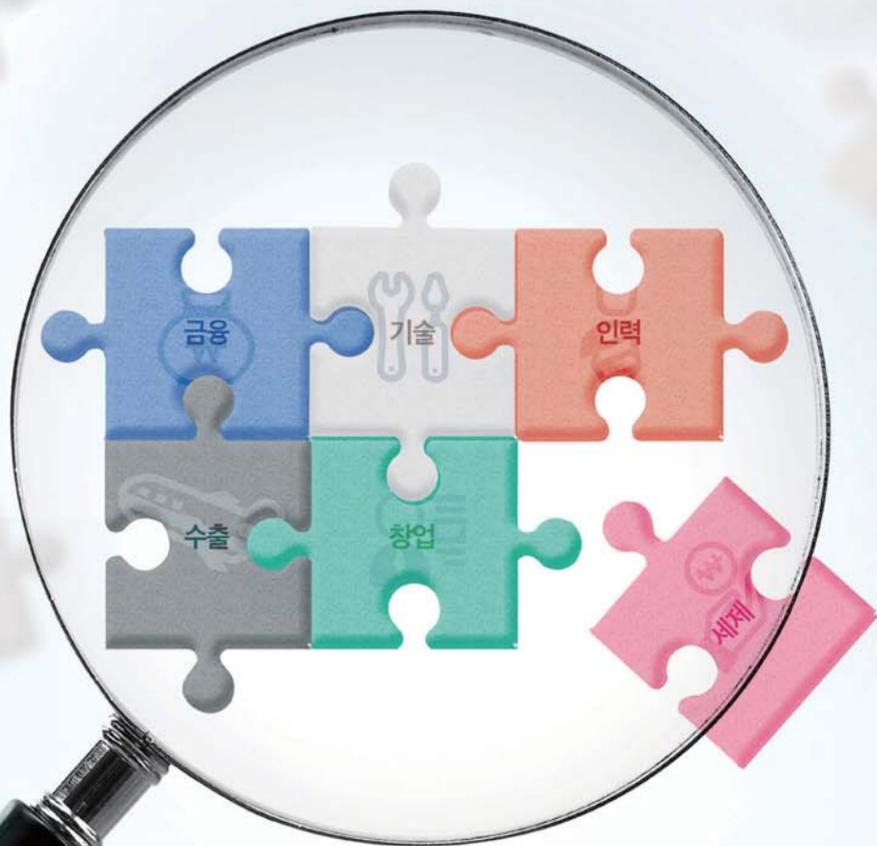


국민권익  
위원회  
연구부  
QUARTERLY MAGAZINE OF ACRC



상 상 으 로 보 인 다

중소기업 경영 고민 많으시죠?



www.bizinfo.go.kr

## 중소기업에 힘이 되는 기업마당



### 기업 맞춤형 서비스

기업조건에 맞는 정책정보 제공, 대화형 간편검색  
지원대상별, 분야별 정책정보를 한눈에 보는 정책차림표



### 온라인 사업신청

지원사업 검색, 신청, 결과 확인까지  
한곳에서 가능



### 기업애로상담

지원사업, 경영애로에 대한 회계사, 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의 상담 제공



### 다양한 부가서비스

교육/세미나/전시회 정보, 정책문자발송,  
기업업무용서식, 전문가 5분 특강

# 행복이 커집니다

당신의 성실 납세로  
대한민국의 행복이 더 커집니다

**성실 납세에 감사합니다**

제50회 납세자의 날  
2016. 3. 3.



# 중소기업 경영 고민 많으시죠?



www.bizinfo.go.kr

## 중소기업에 힘이 되는 기업마당



### 기업 맞춤형 서비스

기업조건에 맞는 정책정보 제공, 대화형 간편검색  
지원대상별, 분야별 정책정보를 한눈에 보는 정책차림표



### 온라인 사업신청

지원사업 검색, 신청, 결과 확인까지  
한곳에서 가능



### 기업애로상담

지원사업, 경영애로에 대한 회계사, 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의 상담 제공



### 다양한 부가서비스

교육/세미나/전시회 정보, 정책문자발송,  
기업업무용서식, 전문가 5분 특강

# 국민권익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신 포 문 의 보 호  
부  
QUARTERLY MAGAZINE OF ACRC

## CONTENTS 2016 SPRING



### ACRC on

- 04 스페셜 인터뷰  
성영훈 위원장 인터뷰
- 08 핫이슈 1  
국민권익위원회 2016년 업무계획
- 10 핫이슈 2  
제4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 14 증인  
국민권익위원회 엿보기  
- Part 1. 국민소통을 통한 제도개선
- 16 사례 엿보기  
기간제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보아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을 회수한 사례
- 18 현장 24시 1  
청주지역 임대아파트 이동신문고
- 20 현장 24시 2  
정읍시, 신태인 철도 지하차도  
시설개선 현장조정회의
- 22 청렴스토리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통과
- 24 ACRC 리포트  
국민신문고의 우수성, 튀니지에 알리다



### THEME on

- 26 테마칼럼  
부패와 성장, 그리고 삶의 질
- 28 독자에세이  
제4회 국민권익의 날 국민훈장 수상자  
감사 편지
- 30 선진국 가이드  
미국정부윤리청  
청렴한 미국을 만들어 가다



### CULTURE on

- 34 한입의 행복  
이미옥 나물요리연구가 인터뷰와  
민들레결절이 만들기
- 38 그곳에 가면  
바다와 숲 그리고 호젓한 돌레길의 만남  
- 경남 창원
- 42 2016 트렌드  
몸 속 묵은 때 말끔히! 생활 속 해독법
- 44 생활법률상식  
연대보증 피해 사례와 구제 방법
- 46 권익위 문화 초이스  
여유와 함께 즐기는 문화생활
- 48 힐링 컬러링  
아트테라피, 힐링 컬러링
- 50 ACRC 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소식
- 52 소통마당  
독자의견과 퀴즈

스페셜 인터뷰

# 국민의 입장에서 진심을 담아 새로운 길을 걷다

성영훈 위원장 인터뷰

그 누구보다 분주한 연말과 새해를 보낸 성영훈 위원장. 하루하루 바쁜 나날이었지만 국민들의 신문고 역할을 수행하며 기쁜 마음으로 보냈다. 3월 31일 취임 100일을 맞이하여 성영훈 위원장을 만나 그간의 행보와 목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글 · 편집실



**만나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3월 31일로 취임 100일을 맞이하셨는데, 간단한 소회를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12월 23일 제5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취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3월 31일 자로 벌써 100일이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국민권익> 독자 여러분께 반가운 마음으로 지면으로나마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절박함을 호소하는 민원현장을 방문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고, 여러 분야에 계신 정책고객들을 모시고 권익위가 국민을 위해 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경청하는 자리도 네 차례 정도 가졌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권익위가 국민과 더욱 친숙해지고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 드리는 기관으로 발전하는 데 저의 역량과 열정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굳게 하고 있습니다.

**취임식 때 위원장님께서 권익위의 업무추진 방향으로 ‘실질의 추구’, ‘균형의 확보’, ‘겸손하되 자긍심 있는 처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의 핵심과 고충의 실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 건 한 건 소중하게 생각하고 끝까지 정성을 다하자는 의미를 담아 ‘실질의 추구’를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고충민원 해결도, 행정의 적정성 판단도, 부패방지 제도와 실천도 서로 상충되는 가치와 이익이 합리적으로 조정된 균형감이 부족하면 국민의 신뢰와 승복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균형의 확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국민과 최일선에서 만나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른 부처와 기관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겸손하되 자긍심 있는 처신’이 중요합니다. 국민과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존중하는 겸손한 자세로 임할 때 신뢰가 형성되고 업무의 결과도 개선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국민권의 보호를 위하여 무엇보다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가장 염두에 두시는 국민과의 소통 방향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분석하고 정부 정책과 제도에 충실하게 반영하여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올해 권익위에서는 생활 속 불편을 유발하는 규제를 상시적으로 발굴하여 이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처리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사진을 단일규격으로 통일한 사례처럼 국민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3월 국민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익위가 개발한 새로운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개통했습니다. 앞으로도 권익위는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 불편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정부 기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렴’은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기본이 되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업무계획에 ‘청렴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 주체들은 개인과 기업, 정부로 나눌 수 있는 데,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법과 제도, 관행과 문화 같은 환경 요소들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자연 생태계에 빗대어 ‘청렴생태계’라는 말을 썼습니다. 구성 주체가 청렴 의식을 갖고 거기에 걸맞게 역할을 수행할 때 부패사슬을 끊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청렴생태계가 조성되면, ‘부패예방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청렴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공직자와 일반국민들의 인식과 행태까지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청렴사회가 구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6

임차인 주거보호와 같은  
취약계층 민원과 교통사고 다발  
등 생활안전 민원을 해결하고,  
과잉규제 등 기업애로와  
금융불편 사항도 중점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99

# INTERVIEW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공익침해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공익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자나 그 가족이 위해를 입으면 권익위에 신분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법률 개정으로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특별 보호조치를 신설하여, 내부 공익신고자는 실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소송보다 편리하게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대상은 무엇이며, 구체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행정기관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였거나 당연히 해야 할 처분을 하지 않았을 때, 이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및 면허·자격 관련 처분, 영업정지 및 과징금·부담금 관련 처분 등이 대상입니다. 행정심판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행정청은 따라야만 하기

때문에 강력한 권익구제 수단입니다. 온라인 행정심판서비스는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부터 결과 확인까지 모든 절차를 온라인상에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작년까지 광역시·도 행정심판위원회를 포함한 42개 기관을 구축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고, 금년에는 21개 기관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업무 중 110 콜센터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민원을 내거나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도 각 부처의 상담번호를 알 수 없어 어디로 전화를 해야 하는지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110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번 없이 110만 누르면 정부 민원에 대한 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까지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콜센터(11개

기관, 29개 콜센터, 13개 번호)와 통합·연계 추진하며, 나머지 각 부처 콜센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대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안전처와 협업하여 현행 20개의 안전관련 신고전화를 112(범죄), 119(재난)로 연계하고, 긴급전화에 유입된 비긴급 민원 상담은 110번으로 연계하도록 4월부터 시범실시를 한 후 9월에는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회가 수행하는 국민권익 보호와 부패방지 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을 정책 목표로 삼아, 국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내 가족의 일처럼 정성을 다해 해결하고, 다수가 제기하는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근원적으로 발생을 예방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렴생태계에 대해서도 앞서 설명 드렸지만, 부패를 예방하는 법과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가 뿌리 내려 사회 구성원의 의식 변화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권익> 독자들에게 전하시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립니다.**

권익위에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비전은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국민이 행복한 나라'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충실히 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권익위의 비전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지난해 말, 제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발 국민의 입장에서 진심을 다해달라"던 어느 민원인의 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실제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를 고민하며, 더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권익위가 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명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2016년 업무계획

권익위는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을 위한 2016년 업무계획을 지난 1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권익위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우리사회의 투명성을 향상하기 위해 '청렴생태계 조성', '국민체감형 민원해결', '국민소통 내실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권익위의 2016년 업무보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글 ·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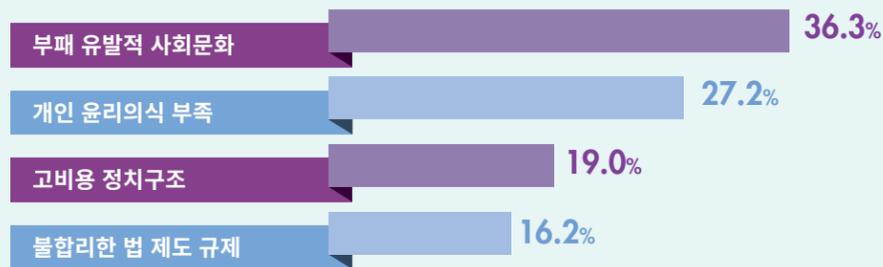
## #1

### 청렴생태계 조성

권익위의 국민 대상 2015년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우리 사회의 부패 발생 원인을 '부패 유발적 사회문화'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에 권익위는 국무조정실(부패척결 추진단), 각 부처 및 수사기관 간에 긴밀한 공조를 통해 사전예방 중심의 반부패 시스템을 운영한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부정환수법)'을 '반부패 3법'으로 선정해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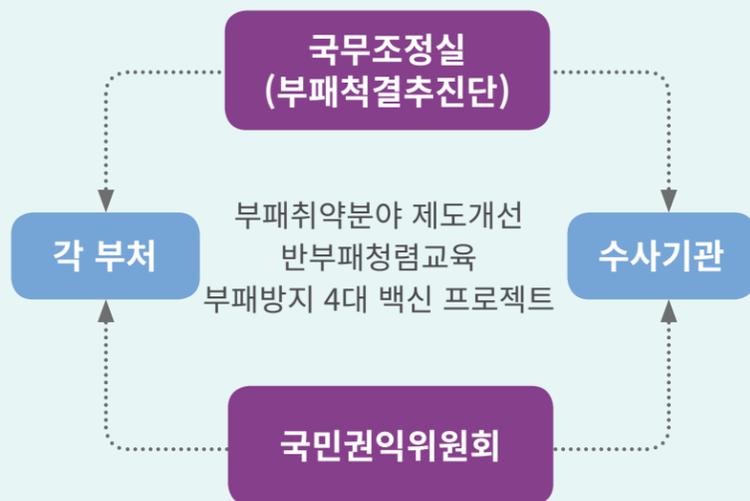
권익위는 대규모 국책사업과 국민안전 직결분야에 대한 조사·점검을 실시하고, 정부·지자체의 위탁·대행사업 등 법·제도상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할 것이다. 공직자에 대한 체계적인 청렴 교육은 물론 교과서에 청렴 관련 콘텐츠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 사회의 부패 발생 원인



권익위 국민대상 2015년 부패인식도 조사

청렴 국가를 만들기 위한 추진동력 확충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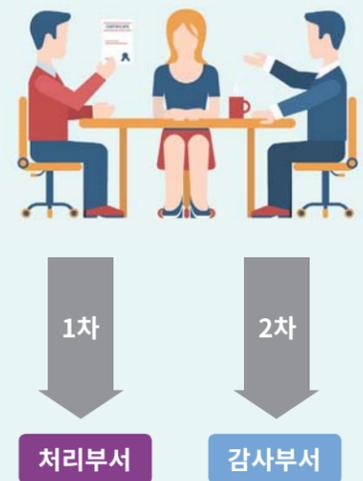
### 국민체감 민원해결

권익위는 임차인 주거보호와 같은 취약계층 민원과 교통 사고 다발과 같은 생활 안전 민원을 해결해 나갈 것이다.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4대 보험공단의 통장압류 실태기획 조사 및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과도한 채권 추심 해결을 강화하여 서민금융피해민원 해결로 개인회생을 돕고, 기업규제·공공계약 피해기업 고충 해소 확대에 기업 재황을 지원한다. 지역의 장기 미해결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조정 협의체'를 확대 운영하고, 여러 기관이 관련된 민원은 관련부처와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며 부처 간 이견이 첨예한 경우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해 해결한다. 그동안 원래 부서의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어 다시 제기한 민원을 또다시 같은 부서로 보내 '도돌이표 민원'이 문제 시되었으나 2016년은 이를 차단해 민원을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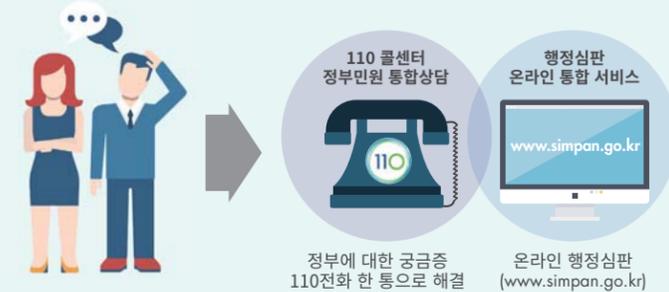
집단민원 해결노력 강화



소극적인 민원처리 행태 개선



더 편리한 소통 시스템 구축



'국민의 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



## #3

### 국민소통 내실화

권익위는 국민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통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12(범죄), 119(재난) 등으로 유입된 일반 민원 전화는 110(정부민원)으로 연계하여 처리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청구부터 결과 확인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심판 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권익위는 민원 속에서 드러난 국민의 요구를 분석하여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것이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중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상시 발굴하고 이를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처리되도록 하며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사진을 여권 단일 규격으로 통일한 사례처럼, 국민의 일상 생활 속 불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하여 취약계층 민원 해결에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나갈 것이다.

#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공감의 장

## 제4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1402년 2월 27일, 조선 태종이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과 소통하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라는 교서를 내린 날이다. 권익위는 태종의 이러한 뜻을 이어 받아 지난 2012년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선포하여 국민권의 보호 의지를 대외에 천명하였다. 그리고 2016년 제4회 국민권익의 날을 맞이하였다.

글· 편집실



성영훈 위원장은 기념사를 전했다.



국민권의 증진,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을 대상으로 훈장 3명, 포장 2명을 포함한 총 12개 단체 및 101명이 수상했다.

공감

### 권익위, 국민 고민 해결사

권익위는 지난 2월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내빈과 수상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권익위 홍보 영상을 통해 지난 2015년 성과에 대해 알렸다.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탁금지법을 제정하고, 현장조정 및 이동신문고를 통해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를 실천하며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확대 운영하고,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민원을 적극 발굴·해결하는 등 대한민국 구석구석까지 찾아가며 국민 고민 해결사 역할을 하였다.

권익위 성영훈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권익위는 청렴생태계 조성, 국민체감형 민원해결, 국민소통 내실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부문 그리고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 모두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여 국민권익의 든든한 파수꾼으로서 정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유공자 표창을 받은 수상자들의 단체사진 촬영을 진행했다.

**청렴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을 발굴해 훈장 3명, 포장 2명을 포함한 총 12개 단체 및 101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45점, 권익위원장 표창 68점이 수여됐다.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은 신고자 A씨는 모 군납업체가 항공기 시동 장비를 납품하면서 자사 제품이 성능검사 도중 불량 발생하자 해당 제품을 수입산으로 바꿔치기하여 성능검사를 통과하는 수법 등으로 수백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신고하여 국가재정 누수를 막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 박광배 검사는 역대 최고액의 부패신고 보상금 11억6백만 원이 지급된 (주)효성의 한전 납품관련 편취 사건을 수사하는 등 부정부패 척결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음부즈만·민원부문에서 국민포장을 수상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이경석 교수는 대한의사협회에 설치된 국민권익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고충민원 해결에 필요한 의료 자문을 수행하는 등 국민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한 바가 인정되었다. 이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투명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있어 청렴한 대한민국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다.

**청렴을 꿈꾸는 마음**

유공자 표창을 끝으로 1부가 마무리되고 2부에서는 2015년 청렴콘텐츠 광고부문 수상작 2편을 상영했다. 2편 합쳐 5분 남짓한 짧은 영상이지만 영상이 주는 메시지는 강력했다. '청렴사진관'은 유모차 안에 들어 있는 카메라를 습득하여 욕심이 났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아이의 사진을 본 후 돌려주게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영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어 더욱 깊은 인상을 남겼다. '당연한 삶'은 촌지를 거부한 교사의 이야기로, 청렴은 당연한 일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2부의 행사로 열린 기념 공연에서는 퓨전관현악 공연이 진행되었다. 음악에 맞춰 '아름다운 나라',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을 부르며 부정부패 없이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공정한 사회를  
위한 밑거름**

공권력에 대한 신뢰는 곧 국민의 행복과도 연결이 된다. 그만큼 법과 원칙을 준수해 정의가 살아있는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 사회의 연고주의, 온정주의 등의 관행은 철저히 개선되어야 한다.

국제투명성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렴도가 40위권대에서 30위권대로 진입하였다. 과거보다 나아진 모습을 보이며 희망의 미래에 가까워지고 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청렴한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 온 국민과 기관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알리는 국민권익의 날이 중요한 이유이다.



시상식 후 2부에서 퓨전관현악 공연이 진행되었다.

# 블로그기자단과 함께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엿보기

## Part 1. 국민소통을 통한 제도개선

지난 3월 15일에 권익위 청사에 다녀왔습니다. 권익위의 업무는 크게 제도개선, 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으로 나뉩니다. 이번에는 제도개선 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가볼까요?  
글 · 주건욱(블로그기자단, 한국외국어대학교)



권익개선정책국은 크게 세 가지 업무로 나누어집니다. 제도개선 및 사후관리, 국민소통창구로서의 국민신문고, 여러 민원을 분석하여 처리하는 민원정보분석. 그중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제도개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 제도개선

Q 제도개선은 어떤 업무입니까?

A 재정, 세무, 산업, 노동,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에게 고충이 되거나 사회에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업무는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먼저 권익위에 들어온 신고와 민원을 토대로 제도적인 문제점을 찾아 법령 등 자료와 현장 조사를 거쳐 전문가, 시민단체 및 담당 부처 공무원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만들어 냅니다.

Q 제도개선 성과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A 공공기관마다 요구하는 사진의 규격이 다 달랐어요. 어떤 곳은 3x4, 또 다른 곳은 3.5x4.5. 하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모든 사진이 여권용으로 통일됩니다. 이 사례가 업무를 맡으며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여권용 규격으로 사진 규격을 통일시킨 제도개선총괄과의 성과가 놀라웠습니다. 권익위의 제도개선이 우리 사회를 한결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길을 옮겨 민원정보분석과로 향했습니다.



### 민원 정보분석

Q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는 업무인데요, 민원정보분석 업무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쉽게 설명하자면 민원이 왜 생기는지 분석하는 업무예요. 민원은 권익위의 '국민신문고'와 행정자치부의 '새울'을 통해 들어오는데요, 이 민원을 모니터링 한 후 어떤 분야의 민원이 늘어나고 줄어드는지 분석하여 법개정이나 제도개선의 자료로 사용합니다.

Q 민원확산 조기경보와 예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둘은 무엇이고 어떤 다른 점이 있나요?

A 민원확산 조기경보는 신종 민원에 대해서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제도예요. 예를 들면 스피싱이라는 신종 사기수법이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관련 민원이 급격하게 올라오는 것을 보고 언론자료를 배포하는 등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예보제는 추세를 보고 반복적으로 생기는 민원을 알려주는 제도예요. 졸업식 기간만 되면 관련 된 민원이 증가하는 경우 관련 부처에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죠.

민원정보분석과를 다녀온 후 사전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려움을 예방하는 업무를 맡은 분들을 기억해 보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국민의 고충이나 건의, 제안 등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범정부 소통창구 국민신문고과를 방문했습니다.

### 국민 신문고

Q 국민신문고 해외 진출과 재외동포 민원서비스가 눈에 띕니다.

A 국민신문고는 모든 행정기관을 연결한 소통포털로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제도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배우고 싶어 하는데, 국민과의 소통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운영 노하우 등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민원서비스는 언어적, 절차적 장벽 때문에 우리나라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기 힘들어하는 재외동포를 위한 것인데, 재외동포재단과 함께 답변서 번역이나 적절한 행정기관을 연결시켜 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업무 방향과 목표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국민신문고는 그간 원-스톱 소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민원만족도와 행정효율성을 높이는 등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국민 개개인이 의견을 제시하면 행정기관이 답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민·관이 함께 행정·제도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국민 주도 참여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지난 3월 28일 그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국민생각함'을 개통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민신문고과 방문을 끝으로 권익위 견학을 마쳤습니다. 국민의 편의와 권리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고 있는 모든 분에게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분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의 오늘이 어제보다 더 정의로운 게 아닐까요?

사례 엿보기

기간제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보아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회수가  
웬 말!



주었다 빼앗는 것만큼 황당한 일이 또 있을까. 기간제 근로계약이 3회에 걸쳐 반복되었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보아 이미 지급된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을 근로자로부터 회수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해당 근로자의 억울한 호소를 듣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글·편집실



확인절차 생략된 고용형태 변경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우선 대상으로 이들이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본인 비용으로 수강한 훈련과정 수강료를 되돌려주는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일용 근로자가 해당된다.

매년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3차례 선발된 기간제 근로자인 A씨는 2개월간 직업훈련기관에서 소셜마케팅 전문가 과정을 수강하고 2014년 3월에 고용노동부로부터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소셜마케팅 전문가라는 꿈을 위해 A씨는 일하느라 지친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고, 감겨오는 눈꺼풀을 힘겹게 올려가며 열심히 강의를 들었다. 하지만 A씨는 이러한 노력의 보상을 받기도 전에 날벼락부터 맞는 일을 겪게 되었다. 고용노동부는 A씨가 3차례에 걸쳐 단기의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것으로 보고 더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A씨에게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하는 처분을 내린 것이다.

A씨는 너무나 억울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3번 연장했을 뿐인데 본인 확인여부 절차 없이 마음대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판단하고, 줬던 지원금까지 내놓으라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겠나 말인가! 이에 A씨는 납득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의 신문고를 두드렸다.

\*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근로자이며,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정규직과 유사

지원금 회수는 위법·부당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친구처럼 권익위는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양팔 걷어붙여 행정심판을 진행하였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매년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선발된 기간제 근로자가 3회에 걸쳐 반복 채용되어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A씨가 외부위원 심사, 1·2차 입사시험 등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매년 새롭게 선발되어 단기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전년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자가 다음 년도에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집과정, 전형방법,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충분한 조사 없이 단지 3회에 걸쳐 단기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것으로 판단하여 A씨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보고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이렇게 억울한 사연이 해소되고, A씨는 다시 꿈을 향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일상으로 되돌아갔다.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고, 우리 국민은 이러한 혜택을 마음껏 누릴 권리가 있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시작한 일이라도 결과적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남긴다면 본래 의도가 무색해져 버린다. 이번 A씨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는 좀 더 신중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현장 24시 1

# 열린 소통으로 덜컹거리던 일상의 불편을 해소하다

청주지역 임대아파트 이동신문고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일상 가운데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을 모색하는 이동신문고가 열렸다. 지난 3월 25일, 청주시 임대아파트에서 주택분야 고충민원 상담을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 뼈격대던 문도 고치고, 쌓여 있던 마음의 고충까지 나누는 시간이었다.

글·편집실



## 말할 수 있어 시원하고, 들어주니 고마워요

복지관에 임시 마련한 상담 창구가 채 준비되기 전부터 모여든 주민들로 복도가 북적였다. 지은 지 20년이 훌쩍 지난 노후된 아파트다 보니 하자 내용도 다양할 뿐 아니라 반복적인 경우가 많다. 겨울철 결로로 곰팡이가 핀 발코니라든가 개폐불량으로 찬바람이 들어오는 문, 기울어진 빗물받이, 자꾸 떨어지는 문손잡이 등 그동안 일상을 불편하게 했던 고충들이 봇물 터진 듯 쏟아져 나온다. 어느 입주자는 너무 높이 위치해서 사용할 수 없는 선반형 신발장의 철거를 요청하기도 했다. 불편을 토로하는 상황이 대개 그러하듯, 상담실에 들어서는 주민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가 않다. 그간 관리실에 요청했지만 해결되지 않아 속타던 마음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이다.

“어머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그러나 친근한 웃음으로 마주한 상담자의 환대 앞에 다소 마음이 녹은 듯, 상담 분위기는 마치 자식들 앞에서 이런저런 하소연을 하듯 자연스럽게 편안해진다. 전문조사관과 관련 전문가들이 대동한 자리인 만큼, 손쉬운 민원은 그 자리에서 당장 해결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해당 가구를 방문해서 꼼꼼히 원인을 살피고 대책을 모색하니, 주민들은 점차 마음이 놓이는 분위기다.

“아이고,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실컷 다 할 수 있어서 우선 그것만으로 마음이 한결 낫죠. 안심이 되기도 하고.”

상담실을 나서는 입주주민들은 대부분 ‘시원하다’, ‘정말 해결됐으면 좋겠다’, ‘고맙다’는 반응이다. 전문가들이 직접 찾아와 마주한 자리에서 고충을 들어주는 직접소통의 효과다.

## 고충은 덜고 마음은 나누는 시간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 한 분은 화장실에 출입하는 동선 벽면에 짚고 일어설 수 있는 붓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문의해 왔다. 고령에 홀로 사시는 분이거나 장애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특성상 이런 요구는 현실적으로 상존하고 있다. 민원팀이 직접 방문해서 살피겠다는 말에 “그럼 내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며 나서는 할머니. 이미 마음에 든든한 버팀목 하나를 얻은 표정이다.

한편 입주한 지 얼마 안 되는 한 주민은 아기가 있는 방에 문이 안 닫혀 찬바람이 그대로 들어온다며 다소 격양된 모습으로 찾아왔다. 상담팀을 이끄는 장대한 서기관을 비롯한 관련 조사관들이 해당 가구를 우선적으로 방문해 살펴보기로 했다. 노후된 미닫이문의 호차와 휘어진 문틀이 문제였다. “최선을 다해 조치해 보겠다”는 말에 민원인은 따지듯 흥분하던 잠시 전의 상황을 미안해하는 눈치다.

“직접 말씀을 들어보니, 그동안 힘드셨던 상황이 그대로 다 느껴져요. 문제가 해결되고 주민들이 안심하는 걸 보니 저도 보람이 됩니다.”

이날 상담원으로 나온 오연경 사무관은 민원인들 가운데 외로운 어르신들이 많다는 점이 특히 안타깝다고 했다. 때로 주택시설과 상관없는 이런저런 고민까지 털어놓는 통에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지만, 그는 최대한 공감하며 들어주고자 애쓰고 있었다. 힘겨운 삶의 외로움까지 잠시 보듬을 수 있다면, 그 또한 의미 있는 소통의 중요한 영역이라 여기는 것이다.



# 30년 묵은 민원해결, 주민들의 체증을 해소시키다

## 정읍시, 신태인 철도 지하차도 시설개선 현장조정회의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지하차도가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에 정읍시 주민들의 오랜 민원을 해결하는 정읍시 철도 지하차도 현장조정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동안 마음 졸이며 지내온 해묵은 시간이 해결되는 순간이었다.

글·편집실

### 관계 기관의 대립으로 속 타는 주민들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소재의 호남선 철도 지하차도. 1985년 옛 철도청이 설치한 이 지하차도는 지난 30여 년간 정읍시와 부안군을 잇는 주요 이동 통로로, 인접한 4개면 주민 15,000여 명의 생활 중심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차도 폭 3m, 인도 폭 2m로 매우 협소하고 급경사(30%)까지 저 농기계, 자전거, 전동 휠체어는 물론 노약자의 통행까지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통행의 어려움 때문에 주민들은 철도선로 위를 지나는 차량전용 고가도로인 과선교를 이용하였다. 그래서 교통사고까지 빈발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이 과선교는 2015년 안전진단결과 C등급 판정을 받으며 보수, 보강이 필요한 다리였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주민들은 지하차도의 확장·개선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관련 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전라북도, 정읍시의 의견이 대치되어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하차도 확장은 정읍시가 처리할 사안이라 주장했으며, 정읍시는 지하차도는 철도시설물이므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 섰다. 관련 기관들의 대립으로 애꿎은 주민들의 피해만 늘어 결국 정읍시 주민 580명은 2015년 6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성영훈 위원장이 정읍시 철도 지하차도 관련 현장브리핑을 보고받고 있다.



정읍시 주민들은 지하차도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참석자들의 논의를 거쳐 현장조정 최종합의를 이끌어냈다.

###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주민들의 권리를 찾다

권익위는 민원접수 후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2016년 1월 28일 정읍시 신태인읍사무소에서 성영훈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였다. 성영훈 위원장은 제일 먼저 민원현장을 방문하고 주민들과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간 주민들이 겪었던 불편함을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보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부탁드립니다.”

이 한 마디 짧은 말 안에 정읍시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져 있는 듯했다.

민원현장 방문 후 주민들과 전라북도,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호남본부, 정읍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가 진행되었다. 참석기관들은 이날 지하차도를 현재 차도 1차선, 인도 1차선에서 차도 2차선과 양측에 인도가 개설되도록 확장·개선하는 지하차도개선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또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정읍시는 철도부지를 경계로 철도부지 내 소요 사업비의 75%와 25%를 각각 부담하기로 하고, 철도부지 이외 지역 소요 사업비는 정읍시가 전액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전라북도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정읍시가 추진하는 지하차도 확장·개선사업

완료 후 노후화된 고가도로를 철거하기로 했다.

성영훈 위원장은 “오늘 현장조정은 기관 간 협업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30여 년 묵은 집단민원이 원만히 해결되어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관계기관이 앞으로 합의 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라북도와 정읍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결정된 협의 사항에 대해 만족하는 듯 서로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 이를 보고 참석한 주민들도 그동안의 묵은 체증이 시원하게 내려간 듯 기뻐하며 박수를 쳤다. “어휴, 그동안 얼마나 위험했는지 몰라”, “이제는 조마조마하며 안 다녀도 되겠어”라고 말하며 회의장을 나서는 주민들의 발걸음이 무척이나 가벼웠다.

이번 정읍시 현장조정회의는 권익위의 2016년 주요업무계획 중 하나인 ‘국민체감 민원해결’과 연결되어 더욱 의미 있는 자리였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느끼는 생활 속 민원에 더욱 귀 기울이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권익위의 현장조정회의가 진행되길 기대해본다.

# 청렴사회를 위한 재도약,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통과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고자 공공기관의 청렴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지난 3월 3일 국회에서 통과 되었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공직사회의 부패척결을 위해 한걸음 더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떠한 내용으로 개정되었는지 알아보자.

글 · 편집실



## 부패방지 업무수행을 위한 법적기반 강화 필요성 대두

권익위는 지난 2002년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실시해왔다. 청렴도 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측정하고 부패취약분야를 해당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해왔으나 부패에 관해 조사·평가하는 것만으로는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권익위의 효율적인 부패방지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계량적 부패측정 및 조사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평가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며, 공공기관의 청렴교육을 의무화하여 공직자의 청렴성 및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다.

또한 부패행위를 저지른 자가 징계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하여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지난 2013년 4월 24일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제337회 정국회에서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지난 3월 3일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국회를 통과하였다.

## 더욱 강화된 공직자 부패에 대한 제재

개정된 법률에 따라 권익위의 공공기관에 대한 계량적 부패측정 평가지표 개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에 관한 조사, 결과공표 및 취약 기관에 대한 컨설팅 실시의 법적 기반이 강화되었고, 해당 공공기관은 권익위의 청렴도 조사·측정 결과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다. 청렴도 조사 결과의 공개는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의지가 미약했던 기관이 자발적으로 청렴도를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부패신고자가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그 불이익 처분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장치도 마련되었다. 공직자 부패에 대한 제재도 더욱 강력해진다. 그동안 자율로 진행되었던 공직자 부패방지 교육을 의무화하였고, 퇴직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비위면직자와 같이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위원회의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 규정 및 위원회의 비위면직자 해임요구에 대한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국가의 청렴은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청렴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동안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보도가 나올 때마다 이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이슈가 되곤 했다.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이 공직자윤리법과 함께 시너지를 일으켜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주요 개정 내용

- 청렴도 조사·평가 근거 명확화 및 컨설팅 실시 규정 마련(제27조의2)
- 청렴도 평가 결과 해당 기관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제27조의3)
-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 요구 근거 신설(제27조의3)
- 공직자에 대한 부패방지 교육 실시 의무화(제81조의2)
- 퇴직공직자가 부패행위로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현행 비위면직자와 같이 취업 제한(제82조)
-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대폭 확대(제82조)
- ...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시장형공기업·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 등
-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개념 명확화(제82조)
- ... 직위·직책·계약 형식 불문, 업무처리·조언·자문 등 지원하고 임금·봉급을 받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권익위의 자료요구권 신설 및 자료제출 요구 거부 시 과태료 500만 원 부과(제91조)
- 권익위의 비위면직자 해임요구에 대한 거부 시 과태료 1천만 원 부과(제91조)



TUNISIA

# 국민신문고의 우수성, 튀니지에 알리다

재스민 혁명의 나라 튀니지. 북아프리카의 어느 작은 나라라 생각할 수 있지만 독재와 부정부패 철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진 나라이다. 여기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민소통 시스템 국민신문고가 구축되면서 튀니지 시민들은 더욱 큰 힘을 얻게 되었다.

글 · 편집실



양해각서 체결식



튀니지 국민신문고 구축 착수보고회



주 튀니지 대사관 방문

## 국민신문고의 첫 해외 수출

지난 2월 21일 권익위는 튀니지 시민참여확대를 위한 국민신문고 구축사업 지원을 위해 3박 6일 일정으로 튀니지 행 비행기에 올랐다. 우리나라 범정부 온라인 민원포털인 '국민신문고'가 처음으로 수출되는 만큼 이번 행보는 권익위에 있어 굉장히 의미가 깊다. 이번 튀니지 방문은 고위급 협력회의 개최로 첫 일정을 시작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튀니지 시민참여 확대와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를 교류하고 국민신문고시스템이 튀니지에 안착되도록 법·제도와 기술을 공유한다는 내용의 업무 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튀니지 측은 국민신문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국민신문고 사업에 필요한 법, 제도, 유관기관 협의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권익위는 온라인 민원창구 개설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간 튀니지 시민들은 각종 민원을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많았다. 이번 사업으로 튀니지 시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민원, 정책제안 및 부패신고 등을 신청하고 처리상태 및 결과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시민과 대화를 강화하고 포럼의 장을 마련해주며 시민들의 제안을 받기 위한 온라인 소통공간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다.

## 성공적인 시스템 안착을 위하여

24일에는 공공서비스·굿거버넌스·반부패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튀니지 국민신문고 구축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튀니지의 시민참여확대와 부패신고 관련 내용을 주제로 대한민국의 국민신문고 시스템이 튀니지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튀니지 반부패부장관은 국민신문고 구축 사업을 통해 국가 통합과 투명성 제고는 물론 명확한 미션과 목표를 가지고 시민을 만족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참여가 늘어날 것이고, 시민 의식도 고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튀니지 진출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등 다른 나라와의 협의도 적극 추진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국민소통 시스템이 더 많은 나라로 진출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신문고란?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는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거나 행정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각종 신고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민소통창구로 지난 2005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이후 2011년 UN으로부터 공공행정상(Public Service Award)을 수상하는 등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왔으며 이를 계기로 권익위는 여러 나라와 국민신문고 시스템 진출을 협의하고 있다.

\* 반부패부(The Ministry of Public Services, Good Governance, and Fighting Corruption) 튀니지 공공서비스의 개혁과 품질관리, 거버넌스 전반 개선, 부패방지 대책 수립 및 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로 2016년 1월 6일 설립

# 부패와 성장, 그리고 삶의 질

글 · 이종수(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세계은행(World Bank)은 2013년 전세계에서 거래된 뇌물이 한화로 1천 270조 원에 이르렀다고 발표하였다. 전세계 각국이 창출한 GDP의 3%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여기에는 횡령, 공금유용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니 실제 부패로 거래되는 검은 돈의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가.

부패와 성장의 관계를 다룬 논문들은 학계에 다수 있다. 이들은 대체로 부패가 심한 나라일수록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낙후된다는 결론을 제시해 왔다. 아시아처럼 부패가 잔존하면서도 꽤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패러독스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나라들도 장기적으로 보면 부패의 부정적 효과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결론이 제시된다.

## 부패의 사회적 비용

부패는 사회적 자원의 배분을 비효율적인 곳으로 향하게 하고, 필요한 규제를 무력화시킨다. 그리고 정책결정을 왜곡하며, 사회적 자본을 고사시킨다. 그것이 공공연히 용인되면 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이 사라지고 기업이 정신이 폐기되며, 혁신도 약화된다.

부패의 사회적 비용을 단순히 뇌물의 액수나 착복한 돈의 규모로 산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사회 전체에서 자원의 흐름이 잘못되고, 혁신이 둔화되며, 가치의 창출(value creation)이 불가능해진다. 사회 구성원과 기업들이 정상적인 성장의 수레바퀴를 돌리려 하지 않고, 편법적 이득을 취하는 쪽으로 온갖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더 근본적으로는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연결된 신뢰 같은 사회의 토대를 무너뜨리게 된다. 나아가 국민 전체의 삶의 질도 하락하는 것은 물론이다.

부패가 잔존하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짓는 것은 일견 무책임한 말이다. 성장이라는 어휘 속에 사회적 평화나 통합, 개인의 삶의 질까지 포함시켰으면 모를까, 단순히 경제성장의 어려움에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에 늘 목을 매는 사회라면 모를까, 우리는 부패가 초래하는 경제 이외의 엄청난 비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패는 경제성장을 넘어 삶 자체를 파괴시키는 주범이다. 부패가 사라지면 경제가 발전하느냐를 묻기 전에 부패가 사라진 상태는 경제성장 이상의 큰 가치를 갖는,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30여 년 가까이 행정학을 연구하며 깨닫게 된 나의 결론은 '부패 = 실패 = 오염'이라는 등식이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부패는 별도로 따로 존재하지 않고, 반드시 정책의 실패, 환경의 오염, 삶의 질 하락을 수반하고 다닌다.

## 청렴을 위한 하나의 제안

부패를 없애고, 깨끗한 사회를 구상하는 글을 쓰는 기회를 얻었으니, 이참에 하나의 제안을 할 것이 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다시 말해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내용이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이익사회로 나아갈수록 내부고발자의 협조 없이 부패를 파헤치고 차단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진다. 엄청난 원자력발전의 부패와 방위산업의 거대한 비리도 내부고발로 단서가 잡히기 시작했다. 그런데 한국의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내부고발자를 기존의 조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신원의 보호, 처벌금지, 보상 등이다 그렇게 되어있다.

그러나 내부고발자를 내부에서 보호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내부고발자를 외부, 다시 말해 사회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부패를 차단하는 커다란 고발은 지속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한 방안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첫째,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의 기준을 회수 및 절감한 돈으로 하지 말고 '예방효과'의 일정비율로 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 이들의 인생을 건 용기를 충분히 보상해 줄 수 있고 용기 있는 고발을 장려할 수 있다.

둘째, 자치단체와 공기업이 아직 청렴을 향해 갈 길이 먼데, 이들 기관의 감사인력을 대거 개방형으로 채용하되, 채용 시 내부고발 경력자들에게 가산점을 주자. 그러면 내부고발자들이 기존의 조직 대신 새 조직으로 옮겨 뒤통수 숨겨 숨을 쉴 수 있게 되고, 용감한 이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자치단체와 공기업에서는 부패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부패(corruption)는 함께(co-) 망한다(rupt)는 뜻이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뿐 아니라, 우리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뿌리 뽑아야 한다. 그런 희망의 공동체를 꿈꾼다.

3월의 어느 날, 권익위로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지난 2월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부패방지분야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으셨던  
분의 편지였습니다. 따뜻한 격려가 우리 권익위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가슴 벅찬 이 편지를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권익위원장님께!

그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월 27일 제4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부패방지분야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은 ○○○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과분한 국민훈장까지 받게 해주셔서 위원장 이하 부패심사와 직원분들께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  
다.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라도 부정비리를 보면 신고를 하는 것이 당연지사이고, 저로서도 정의사회 구현차  
원에서 신고를 한 것뿐인데 표창장보다 더 훈격이 높은 훈장을 받게 되어 가문의 영광이 되었고, 자식들에게도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상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힘없는 국민들이 많은데, 이들이 피해를 입어도 하소연을 들어주고 해결해줄 곳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권익위의 업무 범위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간 사회 일각의 부정비리, 특히 방산비리에 대해 감사원, 검찰청,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감사관실에  
신고해보았으나 '참고하겠다'는 의례적인 답변만 들었을 뿐 정작 막사, 내사-수사는 착수되지 않았습니다. 그  
래서 이번 '항공기 시동기용 발전기 사기납품 비리' 건도 권익위에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권익위 부패심사과의 ○○○ 조사관이 담당하였습니다. 경찰청, 국방부 조사본부 및 서울지검에서는  
항공기 시동기용 발전기 장비에 대한 지식이 없어 사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간다며 제게 설명을 요구하는 등  
굉장히 시달린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 조사관은 국방부 합동조사단 출신(육군 헌병 수사관)으로 방산비리  
사건 등 군 비리 수사 경력이 많아 제가 신고한 내용도 단 한 번에 이해를 하고 바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경  
찰청에 사건을 고발하였습니다.

수사결과 법원은 2명 구속, 3명 불구속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230여 억 원의 환수추징금이 결정되는 큰  
성과도 얻게 되었습니다. ○ 조사관은 그 이후에도 이 사건이 경찰청, 국방부 조사본부,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처리되는 사항에 대해 전화로 통보를 해주어 신고자로 하여금 권익위에 대한 만족도, 신뢰도를 높여주었습니다.  
사회 일각에는 아직도 잔존 부정비리가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부정부패 일소, 근절, 청산을 위한 노  
력에 더욱더 매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큰 규모의 부정비리의 경우 내부고발자 없이 불가능하다  
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부고발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인지한 비리사건 신고로 기소를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무죄 선고를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  
화해야만 대형 부정비리 신고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사회 일각에 잔존된 부정비리 척결을 위해 대한민국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사회 각 분야를 감시하  
는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분에 넘치는 국민훈장을 수여해주신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원장과 전 직  
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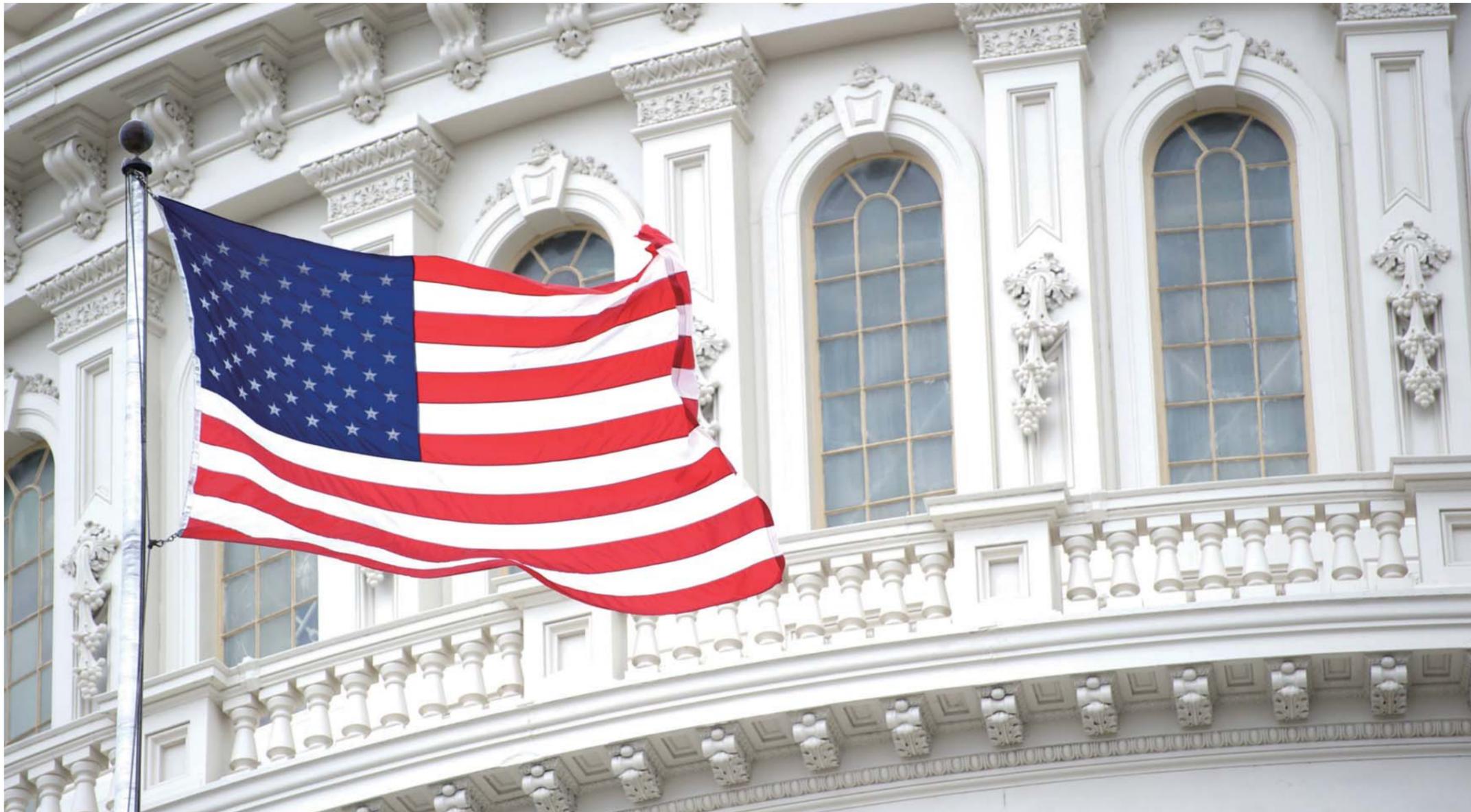
권익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미국 정부윤리청 청렴한 미국을 만들어 가다

공직자 윤리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언론제도, 감시기구, 법안  
등으로 공직자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 미국의 독립된 부패감시기구인  
정부윤리청에 대해 알아보겠다.

글 • 편집실



## 공직윤리, 가장 기본적인 공직의 가치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청렴의 대표 인물이기도 한 다산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다.

“나라를 망치게 하는 것은 왜침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의한 민심의 이반이다.”

그의 말처럼 공직사회의 부패는 나라의 존립을 위협할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고, 한 번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그 어떠한 나무의 뿌리보다 깊고 넓게 퍼뜨려나간다. 미국의 앨 고어 전 부통령도 “어떠한 부패도 공무원들의 부패만큼 파괴적인 것은 없다”고 말할 정도로 공직사회의 부패는 우리 사회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 중 하나다.

공직자의 청렴은 국민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친다. 동서를 막론하고 모든 나라가 그렇듯 미국도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 의해 발생되며, 이는 민주주의의 이념의 근본이라 믿고 있다. 이러한 믿음을 지켜나가고자 미국은 지속적인 감독과 교육을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연방정부나 주 정부에서 발생하는 일반 공무원의 비리사건의 수는 고위 선출직 또는 임명직 공직자들과 관련된 대형 스캔들 발생 수와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렴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미국의 노력은 법안 제정에서도 나타난다. 남북전쟁 당시 발생한 정부조달 비리사건으로 이권개입 공무원에 적용되는 공익과 사리의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법’의 모태가 되는 연방 형법이 제정됐고,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초래한 ‘워터게이트 사건’이 ‘정부윤리법’을 포함한 일련의 개혁조치를 가져왔다.

미국은 법을 근간으로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을 좌시하지 않는다. 뇌물수수, 이권개입, 봉급 외 부수입 및 국익 관련 문제에 있어 사리 추구를 금지하고, 연방관리의 퇴직 후 취직을 제한한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 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 최고 징역 5년형, 5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미국 공직사회의 부패를 방지하고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정부윤리청(OGE, US Office of Government Ethics)이다.





정부윤리청은 공무원행동강령을 대통령령에 상응하는 연방규칙(Code of Federal Regulations)으로 규정하여 강제력 및 규범력을 확보한다. 또한 연방정부 공직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윤리강령 이외에 기관별 업무특성에 맞는 윤리행동지침을 시행하는데, 기관별 윤리행동지침을 제정하려는 기관장은 표준윤리강령과 상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윤리행동지침(안)을 정부윤리청에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윤리청의 심사를 필하고 이를 공표한 후 효력이 발생된다.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 소속기관에서 징계책임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윤리청의 명령 또는 권고에 따라 징계절차가 행해질 수 있다.

정부윤리청은 공직자의 재산등록 관련 업무도 맡고 있는데, 행정부 소속 공무원 중 재산등록 대상자인 약 22,000명에 대한 재산등록 서류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심사에서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공직자의 경우 해당 부처 윤리 담당관으로 하여금 임명 후 3개월 이내에 재산처분, 신탁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



# United States of

# America



## 정부윤리청, 청렴에 대한 대국민 신뢰

정부윤리청은 1978년 정부윤리법(The Ethics in Government Act) 제정으로 인사관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의 소속 부서로 출발하여 1989년 독립된 기관으로 승격되었다. 대통령이 상원의 자문과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5년 임기의 청장이 지휘하는 이 기관은 행정부 공무원의 이해충돌의 예방 및 해결과 공무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제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의 불편부당성과 청렴성에 대한 대국민 신뢰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윤리청의 주요 기능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된다. 미국 정부의 공직윤리 담당, 공무원행동강령 운영·지원,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업무다. 공직윤리 담당의 역할로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공공책임 확립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윤리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하는 것이다. 소속기관 및 주 정부마다 특성에 맞는 윤리준칙 및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법과 제도', '투명성과 재산공개', '훈련', '자문 및 상담', '실질적 결과와 실행' 등 5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 공직자 청렴을 위한 노력

정부윤리청은 행정부 공무원들이 연간 1시간씩 받아야 하는 윤리교육 과정을 통해 지난 1992년 '행정부 직원 윤리행동 준칙'에 포함된 14개항의 일반원칙을 주지시키고 있다. 공직자는 대중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본개념으로 공무원들이 공명정대하게 행동하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직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외부로부터 받는 선물, 직원들 간의 선물교환, 이권개입, 인사청탁, 직권남용 및 외부 활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윤리청은 특히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과 관련해 퇴직 전 금지규정과 퇴직 후 금지규정을 구분해 놓고 있다. 현직에 있을 때라도 퇴직 후 일자리를 알아보는 상황이라면 특정한 정부 업무에서는 손을 떼야 한다. 또한 퇴직한 후라도 과거 자신의 공직과 연관돼 이익을 취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단순히 재취업뿐만 아니라 업무상 접촉도 제한받는다. 전직 공무원은 퇴직 후 다른 사람이나 조직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과거 담당했던 정부 업무와 관련해 현직 공무원과 접촉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 고위직일

경우 이러한 제한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정무직 공무원을 지낸 경우 로비스트로 정식등록을 했을지라도 현직 공무원과 접촉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천만 달러 이상의 계약을 담당했던 공무원은 퇴직 후 1년간 관련 기업에서 일할 수 없다. 형법상 제도 외에 오바마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취임 시 청렴서약(Ethics Pledge)에 서명하도록 요구했다.

정부윤리청은 정원 79명의 작은 기관이지만 모든 행정부처를 감독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은 공직자 청렴 기강이 바로 선 나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지금의 미국을 만든 힘이다.

# Lée

<약력>  
한식요리 연구가이자  
나물요리 연구가  
저서 <법반찬 잘 차리는 책>,  
<이야기가 있는 나물 밥상  
차리기> 등



## 한입의 행복

# 나물 반찬 한 접시, 자연이 준 최고의 보약 한 접시



이미옥 나물요리연구가

사계절 다양한 나물 반찬을 먹을 수 있지만 유독 봄만 되면 나물이 더욱  
생각난다. 이미옥 나물요리전문가를 만나 나물요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레시피 조언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글·편집실

# Miok



### 나물, 너무나 친숙한 존재

사람은 살면서 몇 번의 인생전환을 맞곤 한다. 때로는 변화의 순간이 폭풍  
처럼 찾아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변하는지도 모르고 어느 순간 달라져 있는  
상황을 알아채기도 한다. 이미옥 요리연구가가 그랬다. 요리연구가가 되기  
전 그녀는 가방 디자이너였다. 화려한 가방 디자이너에서 소박한 나물요리  
연구가로의 전환은 의외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고향이 충북 제천이에요. 봄이면 엄마 따라 냉이 캐러 다니고, 찢레순을  
따먹고, 가을이면 고들빼기를 캐고, 나물이 친숙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랐어요. 결혼 후에는 시어머니께서 채취하고 기르시는 나물들을 보면서  
더 관심을 갖게 되었죠. 나물의 맛에 반하고 효능에 놀라 나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져 요리연구가로서의 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물이라 하면 옛날 사람들이 먹던 고리타분한 음식이  
라고 생각한다. 시각적인 면에서도 화려함이라고 찾아볼 수 없고, 양념도  
최소한으로 하기 때문에 자극적인 맛이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무(無)  
’맛이라고 느낀다. 하지만 ‘풀떼기’라고 치부했던 나물의 우수성이 주목  
받기 시작해 이미옥 연구가는 더욱 힘이 난다.



“산나물은 일반 채소에 비해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만큼 토양 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걸 말하죠. 그리고 나물은 온실 속의 좋은 환경에서 자란 채소와는 달리 산과 들에서 자라기 때문에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 만들어 낸 다양한 물질들은 강력한 항암, 항균 효과를 가지고 있어 식재료로 최고의 식품이라 생각합니다.”

**풀? 나물입니다!**

이처럼 우리 건강에 좋은 식재료인 나물이지만 서구화된 식생활 변화로 나물 반찬에 대한 선호도가 육류 종류의 음식에 비해 뒤로 밀려나고 있다.



“정말 잘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옛날엔 쉽게 먹지 못하던 고기 반찬도 바로 먹을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하지만 그 대신 육류 위주의 불균형한 식사 문화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로 인해 고혈압, 비만 등 각종 성인병을 초래하고요. 나물을 풀이라고 먹기를 꺼리고, 고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물도 함께 즐기면서 나물의 다양한 맛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나물에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것을. 하지만 나물이 식단에서 후순위를 차지하는 이유는 조리법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복잡하지 않아 집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은근히 고수의 비법이 필요한 요리가 바로 나물이다. 보통 나물요리는 삶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것이 나물요리의 절반을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아무리 맛깔스러운 양념을 섞는다 할지라도 100%의 맛을 내지 못한다. 이런 점이 나물요리를 꺼리는 데 한몫한다.

“나물요리에 있어 좋은 재료를 고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떻게 잘 삶느냐예요. 너무 오래 삶으면 물컹거리고, 덜 삶으면 질겨서 먹기 힘들거든요. 저도 나물을 삶을 때마다 긴장하는데 나름의 방법을 터득한 것이 바로 직접 만져보는 거예요. 줄기를 손으로 만져봐서 뭉개지지 않을 정도로 물렁하면 적당히 삶아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비자의 관심, 나물을 키우다**

나물요리연구가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나물을 접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는 이미옥 연구가. 대량으로 생산할 수 없는 나물의 특성 때문이다. 그나마 요즘은 마트에서도 세발나물, 방풍나물, 삼채 등 생소한 나물들이 진열대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다행이라고 한다. 나물도 가장 맛있는 때가 있으니 소비자들이 제철 나물을 외면하지 않고 더욱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쳤다.



두릅



더덕순



산병이나물

조선시대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 산과 들에서 채취해서 먹을 수 있는 나물이 약 850여 종이라고 한다. 그중에서 약 200여 종이 알려져 있어 앞으로 찾아야 할 나물과 개발해야 할 나물 요리가 앞으로 이미옥 연구가가 해야 할 몫이다. “아직도 이름 모를 나물들이 수없이 많고 알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계속 연구를 해서 사람들에게 잡초도 훌륭한 나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어요. 또한 사람들이 나물을 더 친숙하게 여기게 하고 싶습니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뒤집어 말하면 영양소 잘 갖춰진 밥만 잘 먹어도 영양제나 보약을 따로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음식재료에는 그것만의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음식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 허를 속이는 인공 조미료와 패스트푸드에 익숙한 사람들에게엔 나물이란 지금 당장은 맛있는 음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조미료가 덜 들어가고, 자연스러운 맛이 나는 음식을 먹어보는 것은 어떨까. 어느새 달라져 있는 자신의 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미옥 나물요리연구가 추천 봄나물 요리**



**민들레겉절이**

따뜻한 봄날에 몸까지 나른해지는 요즘, 입맛까지 확 깨어나게 할 나물 요리는 바로 민들레겉절이이다. 소박한 이름 다음을 가진 민들레는 꽃도 예쁘지만 민들레 잎을 맛보는 것 또한 새로운 즐거움을 준다.

**재료**

주재료: 민들레(2줌=60g)  
무침양념: 고추장(1큰술), 고춧가루(1작은술), 국간장(1작은술), 식초(1큰술), 설탕(1큰술), 다진마늘(1작은술), 통깨(1작은술), 참기름(2작은술)

**조리과정**

- 1 민들레는 잎을 잘 다듬어서 물에 넣고 손으로 살살 흔들어서 여러 번 헹구 낸다.
- 2 체에 담아서 물기를 빼준다.
- 3 무침양념을 한데 넣고 섞는다.
- 4 큰 그릇에 민들레와 무침양념장을 넣고 골고루 간이 배게 무친다.

**이미옥 요리연구가가 알려주는 꿀팁!**

민들레를 손질할 때는 밑동 부분의 어린 꽃대를 뜯어내고, 시든 잎을 떼어 다듬어주세요. 그리고 이물질이 많아서 씻어도 계속 나오니 꼼꼼하게 여러 번 헹구 내야 합니다.

**민들레 효능**

민들레는 인체에 들어온 유해균을 없애는 항균 효과와 독성을 해독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염증과 종기를 치료하며, 번비를 해소하고 만성장염에 좋다. 위장을 보호하고 위궤양과 위염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으며, 소화불량에도 좋다.

\*도움: 도서 <이야기가 있는 나물 밥상 차리기(성안당)>

# 바다와 숲 그리고 호젓한 들레길의 만남

## 봄날 창원

창원은 남해에서 불어오는 훈훈한 바람 덕분에 봄의 기운이 물씬하다. 창원의 명산으로 알려진 무학산은 바다와 숲을 한꺼번에 만끽할 수 있어 주말이면 도보여행자들과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무학산에서 30km 정도 떨어진 소사교차로에서는 한때 영농제한 토지로 인해 민원이 발생했었다. 권익위의 중재에 따라 원만한 해결을 본 곳이라서 봄 여행이 더욱 의미가 있다. 추운 겨울 뒤에 더욱 따뜻한 봄이 오듯 갈등이 해결된 창원에는 어느 봄보다 더 화사한 봄꽃들의 향연이 펼쳐진다. 봄날의 창원을 찾아 떠나본다.

글+사진·임운석(여행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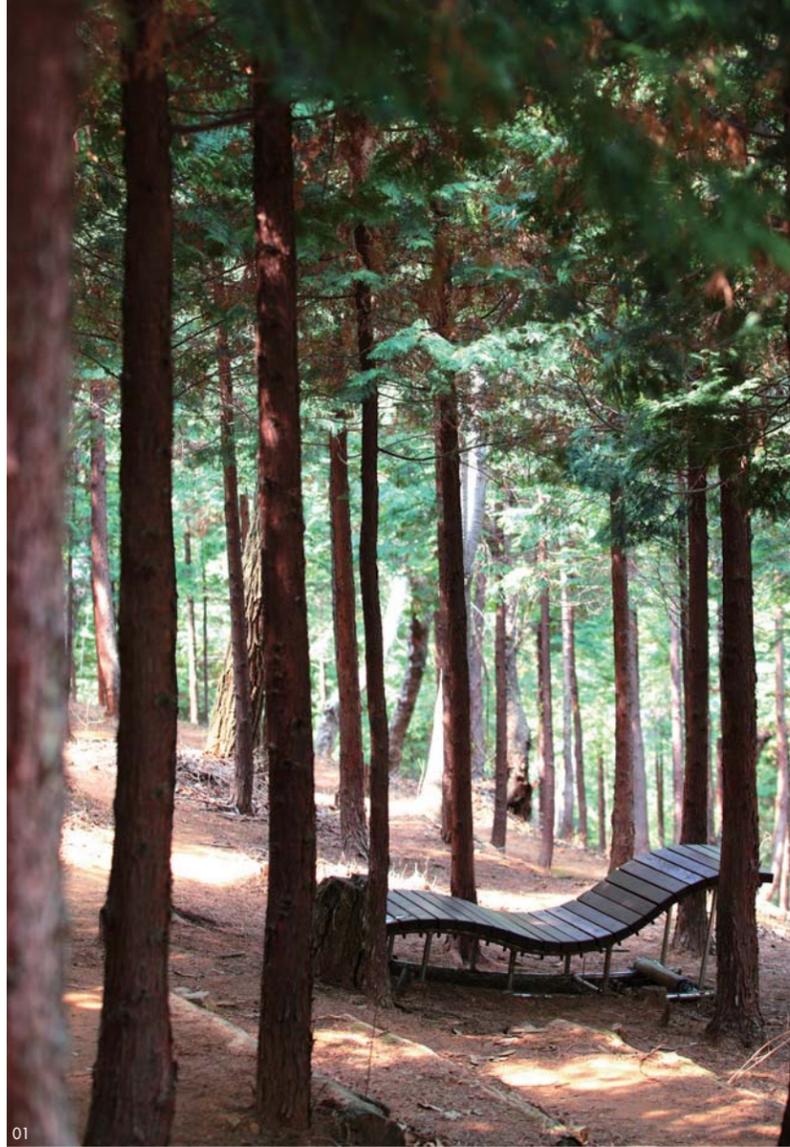
진해, 권익위의 '교통섬 민원 해결'로 인연이 닿은 곳 내 재산이지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불거진 문제가 창원 소사교차로 내 '영농제한 토지 민원' 건이다. 민원이 발생한 토지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2007년부터 건설하고 있는 소사~녹산 지방도로가 만나는 진해구 소재 소사교차로 지점의 접속도로 내 20필지(1만 4,200㎡). 두 기관이 각각 도로를 만들면서 교차 지점의 마을 토지 일부가 10m 높이의 도로에 둘러싸이면서 고립되다 보니 영농은 물론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두 기관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 이에 땅 주인들은 2013년 7월 권익위에

민원을 접수했다. 권익위는 현장조사에 이어 같은 해 9월 11일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두 기관에게 교통섬화된 토지를 두 기관이 나눠서 전부 매입·보상토록 중재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했다. 자칫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지만 권익위의 빠른 조치 덕에 땅 주인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기관은 국책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민원이 발생한 창원 진해 소사교차로에서 30여 km 정도 떨어진 곳에 창원의 진산으로 알려진 무학산이 있다. 해발 767m로 그리 높지 않은 산이지만 창원을 대표하는 명산으로 손꼽힌다. 나아가 전국 100대 명산에도 이름을 올렸으니 그 명성만큼은 전국구인 셈이다.



昌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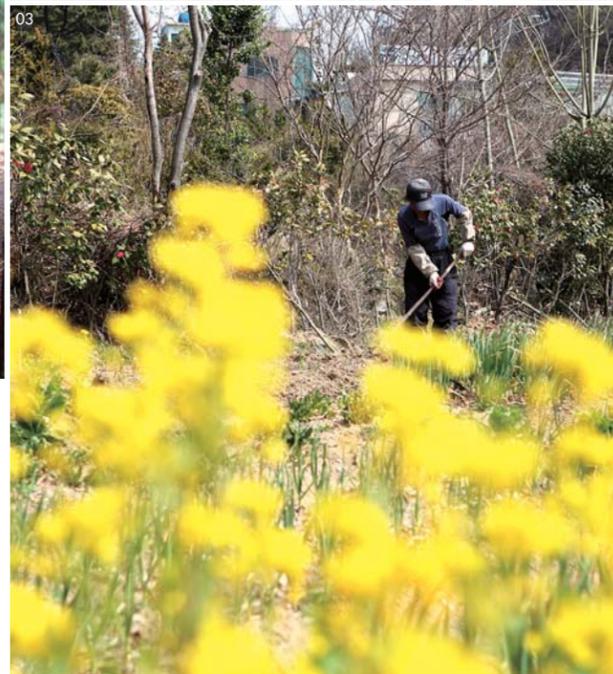


### 도심에서 한발 비켜선 무학산 둘레길

무학산은 산세가 아름답고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빼어나다. 그래서 예부터 '학이 날개를 펼치며 날아가는 모양을 닮았다' 해서 무학산(舞鶴山)이라 부른다. 등산이 수직의 개념이라면 둘레길은 수평의 개념이다. 숲 가쁘게 수직적 삶을 향해 달려온 현대인들에게 무학산 둘레길은 수평에 내재된 안정감을 전해준다. 유아하게 펼친 학의 날개를 따라 걷는 재미가 남다르다. 편백나무 숲 삼림욕장, 만날고개 등 볼거리도 풍성하다.

무학산 둘레길 중주 코스는 밤밭고개에서 중리역까지 21km에 6시간 거리다. 전체 구간 중에서 알짜 코스는 밤밭고개~편백나무 숲 삼림욕장~만날공원 구간. 거리상으로는 5km에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중주보다는 도중에 편백나무 숲에서 편안한 휴식을 선택하는 사람이 더 많다.

출발점인 밤밭고개 아래 율곡마을에는 봄이 한창이다. 화사한 유채꽃밭 뒤로 팽이질을 하는 농부. 그의 두툼한 겨울옷을 따뜻한



봄벌이 벗겨버렸다. 여기는 구획정리 잘된 넓은 논밭보다 텃밭 수준의 척박한 밭이 대부분이다. 창원은 110만 주민의 대도시다. 그럼에도 그 모습만큼은 농촌티를 벗지 못했다. 이곳 마을 사람의 바람이 농촌으로 향하기 때문일 게다.

둘레길 진입로는 슬레이트 지붕의 집이 웅성하게 모인 형국이다. 길바닥에 앉아 침을 다듬는 노부부의 손길이 분주하다. 할아버지는 도끼로 침을 자르고 할머니는 빠른 손놀림으로 침을 걸대로 잘게 찢는다. 그 맨손에 침즙이 넘쳐나 손톱 밑이 침즙에 고스란히 물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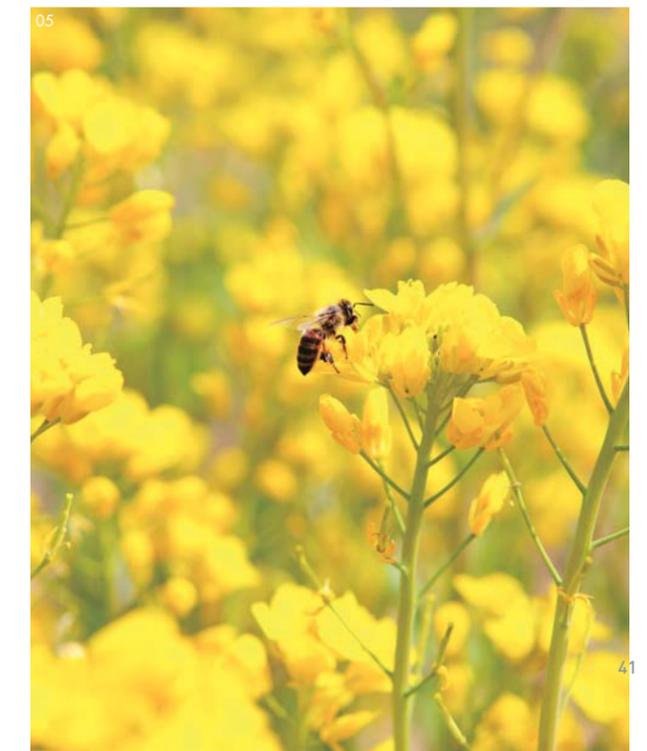
### 무학산 둘레길의 제일 명소는 이곳

야트막한 오솔길을 1시간가량 걷는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걷다 보니 걸음은 더디기만 하다. 산길이 끝나면 수고스럽게 쌓아올린 돌담이 정겹게 여행자를 맞이한다. 그 사이로 막 피어난 민들레가 보인다. 봄의 한가운데에 있음을 증명이나 하듯, 봄은 요란하게 오지 않는다.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교향곡이나 미술사의 현란한 손놀림, 혹은 캔버스를 짙 채운 화사한 그림처럼 '내가 봄이다'하고 티 내지도 않는다. 콧잔등을 간질이는 바람으로, 나도 모르게 두꺼운 외투를 벗게 하는 따뜻한 햇살로 우리 곁에 다가온다. 연륙의 어린 이파리가 겨우내 얼었던 흙을 뚫고 세상 구경을 한다. 부모님 따라나선 어린아이들이 풀밭을 달리며 축복받은 시간을 보내는 중이다. 봄나물을 캐러 나온 아주머니의 옷차림은 봄꽃보다 더 화사하다. 10대 소녀보다도 해맑다. 바구니에는 연한 썩이 한가득 담겼고 콧노래 소리는 절로 어깨춤을 출 만큼 흥겹다. 폭신한 낙엽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덧 편백나무 숲 삼림욕장에 닿는다. 수령이 많지는 않아도 편백나무가 주는 상쾌함과 청량감은 여느 숲길과 비교할 수 없다. 나무 의자와 침대까지 마련해 놓은 길로 보아 무학산 둘레길의 제일 명소임에 분명하다. 호젓한 나무 아래 벤치는 젊은 연인이 사랑을 나누기에 안성맞춤이다. 그 방해꾼이 되기보다 응원군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에 발자국 소리마저 죽여 가며 조심스레 걷는다.

- 01. 쉬고 싶다는 생각이 물씬 든다.
- 02. 봄 햇살을 맞은 싱그러움 편백잎
- 03. 무학산 둘레길에서 만나는 농가 풍경
- 04. 무학산 둘레길은 마을길과 쉽게 연결된다.
- 05. 여적천변에 곱게 핀 유채꽃

완만한 산길을 걷는 동안엔 숲의 소리도 들을 수 있다. 조용히 귀 기울이노라니 잎새에 이는 바람 소리까지 들린다. 참새의 노랫소리도 귓전에 울려온다. 그 소리는 짝을 찾는 구애의 노랫소리 같기도 하고 어미를 찾는 울음소리 같기도 하다.

편백나무 숲 삼림욕장은 경사면이 가파르다. 그 때문에 여길 두고 마산 사람들은 만날고개라 부른다. 병든 홀어머니와 집안의 가난을 걱정할 열일곱 살 효녀의 이야기가 만날고개에 전해 내려온다. 숲을 나와 조각광장에 서면 마산 앞바다와 돌섬, 마창대교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숲과 바다를 모두 품에 안을 수 있으니 무학산의 품은 참으로 넓기만 하다.



## 몸 속 묵은 때 말끔히! 생활 속 해독법

자도 자도 몸은 개운하지 않고, 피부는 푸석하다. 단순히 피로가 쌓여 그럴 수도 있지만 몸 안에 독소가 배출되지 않아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다. 게다가 우리 일상은 가공 물질, 화학물질, 농약 잔류물, 도로에서 마시는 매연과 미세먼지 등 독소로 가득하지 않은가.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독소를 원천봉쇄할 수 없다면 배출만이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글·편집실



### 독소가 쌓이는 이유

우리 몸은 호흡과 음식물 섭취로 영양분을 공급받아 흡수되는 과정에서 독소가 생기고 이를 배출한다. 이때 섭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장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독소를 더 많이 만들고, 생성된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결국에 독소가 쌓이게 되는 것이다. 우리 몸 속의 독소는 종류에 따라 폐, 간, 대장, 신장, 피부, 림프 등 7개 주요 기관에서 배출된다. 이 기관에서 해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갖가지 질병이 나타나게 된다.

### 이럴 땐 이렇게 해독하자

우리 몸의 제1 해독 기능을 맡고 있는 간이 독소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만성피로와 고지혈증, 과민성 대장증상, 고혈압 등의 질병으로 이어진다. 이럴 땐 버섯, 아스파라거스, 아욱, 시금치 등을 주스로 갈아서 마시면 도움이 된다. 이 식품들에는 간 해독 기능을 돕는 비타민B, 마그네슘, 아미노산 등이 풍부하다. 3개월 동안 꾸준히 마시면 더욱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육류, 담배를 삼가는 것이 좋다. 육류의 콜레스테롤과 담배의 카드몬은 해독 작용을 방해한다.

혈관 속을 흘러다니며 영양분을 운반하는 혈액. 영양분과 산소를 세포에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포에서 배출되는 노폐물을 수거해 간으로 보내는 역할도 한다. 콜레스테롤과 젖산 등의 독소가 혈액에 쌓이면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쥐가 나고 근육통이 생기기 쉽다. 평소 운동량이 적은 사람은 요가, 스트레칭처럼 정적인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된다. 이와 반대로 운동을 많이 해서 젖산이 많이 쌓인 사람은 3~4일 정도 운동을 쉬는 것이 좋다. 자기 전 누워 복식호흡을 10분간 하면 몸 안에 들어오는 산소량이 많아져 독소 배출에 효과를 볼 수 있다.

우리 몸에는 필터 역할을 하는 장기가 있는데, 바로 신장이다. 신장은 간에서 나온 혈액에 포함된 요산과 크레아티닌 등의 노폐물을 걸러 방광에 저장한 다음 소변으로 배출시킨다. 요산이 체내에 쌓이게 되면 소변보는 횟수가 줄어들거나 관절 부위에 통증이 생긴다. 크레아티닌은 소변이 진하거나 입이 마르는 증상을 유발한다. 이럴 때에는 매일 2L의 미온수를 아침, 점심 식사 전후, 잠들기 전에 나눠 마시면 독소 배출 효과를 볼 수 있다.

### Tip 해독을 위한 생활 습관



잠이 더 고된 직장인들에게 아침 식사란 먼 이야기지만 되도록 챙겨 먹도록 하고, 저녁은 간단하게 먹도록 한다.



생선, 콩, 두부 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골고루 챙겨 먹는다.



과식을 하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어 탈모를 촉진하니 적당히 먹는 습관을 들인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호흡량을 늘리고 땀이 날 정도의 반신욕과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통해 독소 배출을 원활히 한다.

# 구제받을 수 없는 연대보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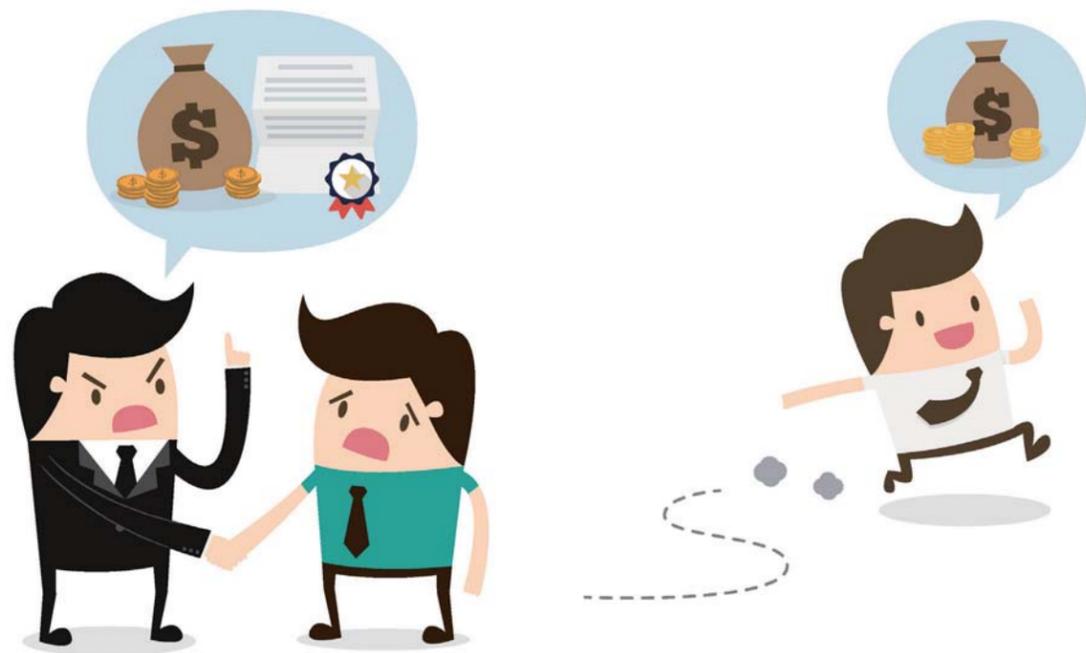
법을 알면 해결 방법이 보인다!

우리 생활 곳곳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들. 법률상식만 알았더라도 억울하게 당하지 않았을 일이 많습니다. <생활법률상식>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생활 속 법률상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호에서는 연대보증과 관련한 피해 사례와 구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편집실

## ☞ 사례

오랜 친구 사이인 A씨, B씨, C씨. 2016년 2월 초 A씨의 연락으로 세 친구는 오랜만에 모여 회포를 푸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A씨가 조심스럽게 생활고 이야기를 털어 놓으며 생활자금 1,0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냐고 물었다. 그 중에서 형편이 가장 나은 B씨가 변제기한은 같은 해 4월 1일, 이자는 매주 월요일 0.3% 지급으로 정하고 빌려주기로 했다. 친구사이라도 돈 관계는 정확하게 해야 한다며 A씨와 B씨는 그 자리에 함께 있던 C씨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였다. 오랜 친구 관계를 유지하면서 A씨의 성실함을 잘 알고 있었고, 아무리 힘들어도 친구 돈을 떼어 먹고 도망갈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믿었기에 C씨는 선뜻 그 자리에서 구두로 보증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얼마 후,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고 했던가. 그렇게 신뢰하던 A씨가 잠적해버렸다. A씨가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B씨는 C씨에게 달려가 A씨가 빌린 원금과 이자를 갚을 것을 요구하였다.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C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전문가의 조언

### 핵심은 구두 보증!



‘보증을 서지 말자!’를 가훈으로 삼은 집도 많다고 하죠? 안 겪어 본 사람들은 그저 웃긴 에피소드이겠지만 겪어본 사람은 가훈을 삼아서라도 가족들이 다니는 보증 피해를 안 겪길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번 연대보증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이 사례에서 핵심은 ‘구두 보증’입니다. 2008년 9월 22일 이후 체결되거나 갹신된 보증은 ‘보증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이 특별법은 기업채무를 보증하는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있었지만(같은 법 제2조 제1호), 민법 개정으로 2016년 2월 4일 이후 체결되거나 갹신되는 보증부터는 제외되는 경우가 없어졌습니다(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본문).

구두로 보증 의사를 밝힌 날이 2008년 9월 22일~2016년 2월 3일에 해당된다면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2016년 2월 4일 이후라면 민법이 적용되므로 보증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여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증계약 체결 시 서면에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보증의 의사’입니다. ‘보증인’ 또는 ‘보증한다’라는 문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대법원 2013년 6월 27일, 선고 2013다23372 판결).

### 원금 중 이미 절반을 갚았다면?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보죠. C씨는 위의 법률 내용을 몰라 B씨에게 매주 월요일 이자를 주었고, 원금 중 500만 원을 갚았다 합니다. 지급한 이자와 원금을 B씨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C씨는 이미 B씨에게 준 돈은 받기 어렵습니다. 보증의 의사를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밝히지 않아 보증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도,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면 그 한도에서 방식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3항, 민법 제428조의2 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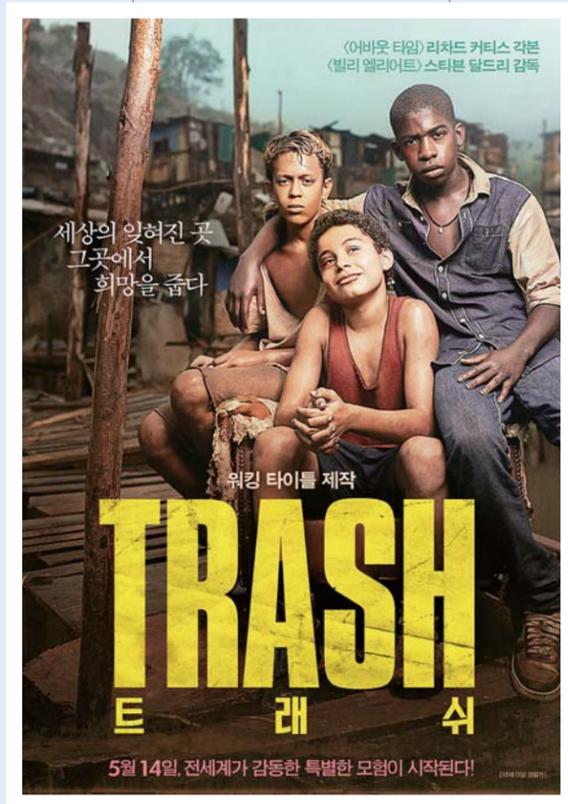
남은 원금 500만 원 및 앞으로의 이자 지급 의무는 부담하지 않지만, 채권자인 B씨에게 이미 지급한 원금 및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을 주 채무자인 A씨로부터 받아낼 수는 있습니다(민법 제441조, 제425조 제2항).

권익위 문화 초이스

# 어느 멋진 봄날, 여유와 함께 즐기는 문화생활

문화생활 즐기기에 딱 좋은 계절 봄! 살랑살랑 봄바람이 기분까지 화사하게 만들어 그 어느 때보다 감성 충만한 날들이다. 권익위가 엄선한 영화, 도서, 전시를 소개한다.

글 • 편집실



## 테마&시네마

### 쓰레기장에서 희망을 주운 아이들 - 영화 <트래쉬>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빈민가에서 살아가는 14살 소년 라파엘과 가르도는 자신의 일터인 쓰레기처리장에서 지갑 하나를 줍는다. 뜻밖의 행운에 기뻐한 것도 잠시, 곧 경찰들이 닥쳐와 어마어마한 현상금까지 걸며 지갑 추적에 나선다. 지갑 안에 중요한 무언가가 있음을 직감한 두 소년은 하수구에 사는 일명 '들쥐'에게 지갑을 맡긴다. 라파엘, 가르도, 들쥐의 수상한 김새를 알아차린 경찰은 소년들을 쫓고, 아이들은 지갑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단서를 찾아가다.

영화 <트래쉬>는 쓰레기처리장 마을에서 빈민층으로 살아가는 세 소년의 위험한 모험을 통해 부패한 정치인과 타락한 경찰 등 비열한 어른들의 세계를 담았다. 지갑에는 브라질의 부패한 권력자들을 심판할 단서가 들어있었다. 아이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경찰을 상대로 그 단서를 지켜나간다. 진실의 문을 완전히 열었을 때 눈앞에 드러난 건 브라질 정재계 인물들이 온갖 비리로 축적한 돈,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적힌 장부였다. 아이들은 평생 살아가도 가질 수 없는 그 돈을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쓰레기장에 뿌린다. 쓰레기 같은 돈을 쓰레기장으로 돌려보내는 아이들. 이 씩씩하면서도 속 시원한 장면은 부정부패가 쓰레기와 다른 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목숨이 오가는 상황에서도 아이들의 얼굴에는 희망의 의지가 지워지지 않는다. 아이들은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지?"란 질문에 주저 없이 "그게 옳은 일이니까요"라고 답한다. 어른들이 포기한 양심과 정의를 지키려는 아이들. 쓰레기처리장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아이들도 무엇이 진짜 쓰레기인지 알고 있다. 우리는 간혹 '불의를 보고 참는 성격'이라고 우스갯소리를 던지곤 한다. 당장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아이들도 의연하게 따르는 정의를 다 큰 우리 어른들은 외면하고 살아가다.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옳은 일 앞에서 고개를 돌려버리는 일을 수차례나 더 겪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눈을 감을 때마다 어느새 양심은 무더져 버릴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정당하게 행동함으로써 정당해지고, 절제함으로써 절제하는 사람이 되고, 용감하게 행동함으로써 용감해진다"라는 말을 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다. "당신은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 도서

###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인간 역사의 대담하고 위대한 질문

####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 김영사)

변방의 유인원 호모 사피엔스는 어떻게 세상의 지배자가 되었을까? 그리고 인간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사피엔스>는 약 135억 년 전 빅뱅으로 물리학과 화학이 생겨나고, 약 38억 년 전 자연선택의 지배 아래 생명체가 생겨나 생물학이 생기고, 약 7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 종이 발전하여 문화를 만들고 역사를 개척하는 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저자는 역사 발전 과정의 결정적인 일곱 가지 촉매제로 불, 뒷담화, 농업, 신화, 돈, 모순, 과학을 지목했다. 인지혁명의 시작으로 불을 지배함으로써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올라선 인간은 언어(뒷담화)를 통해 사회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고, 농업혁명을 통해 기하급수적인 인구증가를 경험한다. 늘어난 인구를 통제하는 강력한 무기는 종교, 계급, 권력 등 허구의 신화들이다. 농업의 발달은 부의 증가와 정착생활로 이어졌고, 사람들은 돈을 맹신하게 되었으며, 돈의 맹신은 사회적 모순을 야기한다. 그리고 500년 전 과학혁명은 우리에게 이전 시기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열어보였다. 40억 년간 자연선택의 지배를 받아온 인류가 이제 신의 영역까지 넘보고 있다. 인간의 지적설계로 만들어갈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사피엔스>는 이런 중요한 순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 어떤 전망이 있는지, 지금이 바로 그 전망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한다.



## 전시

### COLOR YOUR LIFE

#### <색, 다른 공간 이야기> (8월 21일까지 / 대림미술관)

개인의 삶의 질과 감성적 라이프스타일을 중시하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DIY 인테리어로 자신만의 공간을 완성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색을 적극 활용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과감하게 색을 선택하기 시작했고, 색이 우리의 일상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여 '색'을 주제로 동시대를 대표하는 디자이너와 세계적인 브랜드를 소개하는 전시 <COLOR YOUR LIFE-색, 다른 공간 이야기>가 오는 8월 21일까지 대림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여섯 아티스트의 사진 작품들을 통해 일상의 숨겨진 색을 새롭게 발견하는 여정으로 시작하며, 색이 유리, 패브릭, 가죽, 금속 등 다른 물성을 지닌 재료와 만나 발견되는 텍스처의 경험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현재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가구 디자이너들이 독창적인 방식으로 색을 발전시키는 과정을 살펴보고, 2016년 컬러 트렌드를 디자인 거장의 마스터 피스 가구와 함께 적용한 공감의 체험으로 마무리된다.



오로지 나를 위한 몰입 시간, 힐링 컬러링

이번 2016년 <국민권익> 봄호부터 독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아트테라피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컬러로 개성 있는 자신만의 페이지를 만들어 보세요.

채색 후 모두에게 자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진을 찍어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이번 호에서는 컬러링이 현대인들의 취미생활로 각광받고 있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낼 곳: mayji@korea.kr



Healing  
Coloring



나홀로 몰입의 시간이 주는 가치

관계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우리. 터치 한 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디지털 세상에서는 친구 사귀는 것도 쉬워졌다. SNS에는 수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풍요 속 빈곤이라고 공허하기만 하다.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관계의 스트레스 속에서 긴장과 불안을 벗어던지고 오로지 나에게만 몰입하는 시간이 필요해졌다. 이러한 사회현상으로 여가시간만큼은 스스로 '혼자'를 택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 서점가에서도 이를 반영하는 듯 <혼자 있는 시간의 힘>, <고독이 필요한 시간>, <기침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등 '혼자'를 키워드로 한 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 책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일상을 바라보는 생각의 깊이가 깊어진다고 말한다. 혼자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들을 통해 바쁜 일상 속에서 만나지 못했던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면에서 말하는 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바로 홀로 있는 시간이 가져다주는 힘이다.

어른들의 색칠공부

나홀로 여가시간을 택한 사람들이 즐기는 취미로는 필사, 3D 페이퍼토이, 나노블럭, 스크래치 나이트뷰 등 다양하지만 그 중 어른들의 '색칠공부'라 불리는 컬러링북이 인기다. 색이 없는 그림의 선을 따라 색을 채워 넣는 단순한 과정의 연속이지만,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며 채색으로 완성된 그림의 퀄리티가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컬러링북을 찾는 이유는 바로 힐링이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전자화면을 가까이하는 일상으로 늘 긴장상태에 있는 어른들에게 색칠은 긴장을 완화시키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한다. 각 색마다 유익한 호르몬을 활성화하는 기능이 있어 다양한 색을 접하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자극돼 활력이 생기고 부교감신경을 자극해 안정감이 생기는 것이다. 더군다나 펜보다는 터치와 키보드가 익숙한 요즘, 색연필을 손에 쥐고 색칠하면서 종이와 색연필 심의 마찰로 나는 사각거리는 느낌과 소리는, 촉각으로도 청각으로도 편안함을 전해준다. 현대 생활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를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보듬어주는 컬러링. 바쁜 일상에서 취미마저 사치라고 느껴진다면 잠깐이라도 앉아 색을 칠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칠하고, 집중하다보면 마음속에서 불어오는 폭풍이 어느 순간 잠잠해 질 것이다.



**NEWS 1**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주한 영국대사 접견**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3월 15일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찰스 헤이(Charles Hay) 주한 영국대사를 접견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공조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양국 간 반부패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성영훈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준비와 관련해 시행령 제정을 위한 사회 각계 의견수렴 노력과 '청렴생태계' 조성 등 올해 주요 반부패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NEWS 2**  
**곽진영 부위원장, 한국반부패포럼 기초 연설**

곽진영 권익위 부위원장은 지난 3월 29일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진행된 ALB 주최 한국반부패포럼에서 기초연설을 하였다. 곽진영 부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권익위의 올해 중점 업무인 반부패 정책, 청탁금지법 및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의의 등을 소개하면서 반부패 문화 정착을 위해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NEWS 5**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개통식 개최**

권익위와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과 관계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생각함'의 개통을 알리는 국민 참여 행사를 개최했다. '국민생각함'은 모바일 인터넷 확산 및 SNS 대중화 등 정보통신기술(ICT) 사용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익위가 개발한 새로운 소통 플랫폼의 이름이다.



**NEWS 6**  
**권익위, 청년의 시선으로 정책 변화에 동참**

권익위는 정책·제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활동에 참여할 100여 명의 '대학생 정책퓨처리스트'가 참석한 워크숍을 지난 2월 29일 개최했다. '대학생 정책퓨처리스트'는 교육, 청소년, 노인·장애인 복지 등 공공의 문제에 대한 참여·개선 의지가 있고 정책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로서, 3월 권익위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국민생각함'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제도개선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NEWS 3**  
**권익위, 2016년 청렴도·시책평가 워크숍 개최**

권익위는 부패방지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 소개와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2016년 청렴도·시책평가 워크숍을 지난 3월 23일~25일 정부세종청사 및 KT 대전인재개발원에서 개최했다.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 및 부패방지 시책대상기관 등 총 508개 기관, 694명이 참석했다. 청렴도 측정 모형 및 전년 대비 변동사항과 주요내용, 2016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세부지표에 대한 교육 등을 진행하고, 대상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NEWS 4**  
**권익위, 원주-제천 간 철도 및 통로박스 확장 요구 중재를 위한 현장조정회의 개최**

권익위는 2월 23일 강원도 원주시청에서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주민, 한국철도시설공단, 원주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철길 아래에 설치된 통로박스 확장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 중재를 위한 현장조정회의를 열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양방향 차량 통행이 원활하도록 폭 5m의 통로박스를 추가로 설치·확장하고, 원주시는 설치·확장되는 통로박스의 진출입 도로 약 300m 구간을 12월 31일까지 포장하기로 협의했다.



**NEWS 7**  
**한-베트남 옴부즈만 MOU 이행 협력회의 개최**

권익위는 지난 4월 1일 세종청사에서 후인 풍 짜잉(Huynh Phong Tranh) 베트남 감찰원장 등 방문단 10명을 맞아 한-베트남 옴부즈만 이행 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양 기관은 양국 재외국민 민원접수·처리현황 및 민원처리기법 등을 소개하고 향후 양국 간 MOU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NEWS 8**  
**경상권역 찾아가는 행정심판 개최**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상권역 행정심판 청구인의 구술권 보장 등 편의를 위해 3월 23일 부산역 KTX 회의실에서 '찾아가는 행정심판'을 개최하였다. 이날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사건들을 심리하였으며, 총 266건의 사건 중 36건이 일부인용 또는 인용되어 구제받았다.

# Reader's Page 소통마당

## 독자의견

지난 호 <국민권익>을 읽고 독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입니다. <국민권익>은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 나간다는 것 아시죠? 여러분의 애정어린 의견을 기다립니다.

연중기획 '독자와 함께하는 나눔프로젝트, 노부부에게 찾아 온 따뜻한 겨울'이 인상 깊었습니다. 날도 추워지고 갈수록 경기도 어려워지는데, 이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었다는 훈훈한 기사가 더 많이 생겨서 따뜻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덕(인천시 부평구)

<국민권익> 11+12월호 잘 보았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권익위에서 다루는 일 등을 분야별로 자세히 알려주는 기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윤학(광주시 동구)

'맛있는 초대' 기사가 좋았습니다. 추운 겨울 신선한 바다의 맛이 가득한 굴과 참빗으로 곱게 빻어 놓은 매생이국 한 그릇으로 영양 가득한 식탁을 채워보는 것도 좋겠어요. 오늘 저녁 바다향이 가득한 겨울진미를 느껴보고 싶습니다. <국민권익> 2016년을 응원합니다.

장우익(강원도 동해시)

'똑똑! 생활법률' 기사가 좋았습니다. 고령화 사회와 점점 빨라지는 퇴직! 주변 상황에 따라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내용 기대하겠습니다.

김상훈(서울시 동대문구)

중고차 구입 사례에서 보았던 단점들 설명 덕분에 중고차 구매할 때 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떻게'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부족해 조금은 아쉽습니다.

권수영(ivy5157@korea.kr)

## 독자퀴즈

<국민권익> 2016년 봄호 잘 보셨나요? 이번 호 내용과 관련한 독자퀴즈입니다. <국민권익>을 꼼꼼히 읽고 빈칸을 채워주세요.

### Quiz.

세계 각국은 공직자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 중 ○○○○○은 미국의 대표적인 부패방지 기관이다. 1978년 정부윤리법 제정으로 인사관리처의 소속 부서로 출발하여 1989년 독립된 기관으로 승격되었다.

(힌트! p.30 선진국 가이드)

### 지난 호 정답

온라인행정심판

##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격월간으로 독자 여러분과 함께 했던 <국민권익>이 이번 2016년부터 계간지로 발행됩니다. 일 년에 4번 찾아가는 만큼 더욱 알차고 다양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은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국민권익>을 읽고 난 소감과 바라는 점, 권익위를 잘 알릴 수 있는 홍보 방안 등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 보내주세요. 의견과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다섯 분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국민권익>바로가기



# 행복이 커집니다

당신의 성실 납세로  
대한민국의 행복이 더 커집니다

**성실 납세에 감사합니다**

제50회 납세자의 날  
2016. 3. 3.

